
농식품 정책 홍보방향 및 전략수립을 위한 일본 선진사례 조사 출장 보고서

I. 출장 목적

- 농업정책홍보, 농촌지역활성화, 농산물소비촉진에 대한 일본의 선진 사례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정책홍보방향에 대한 이해제고 및 중장기 홍보 방향 설정
 - 농식품 정책의 트렌드(Trend)를 체감하고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농식품홍보 추진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농식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여

II. 출장기간 및 상세일정

■ 출장기간 및 지역

- 기 간: 2011년 10월 24일(월) ~ 27일(목) (3박 4일)
- 지 역: 일본 삿포로, 오비히로
- 출장자: 이상곤 원장, 연규영 연구위원, 손영미 전문원

■ 상세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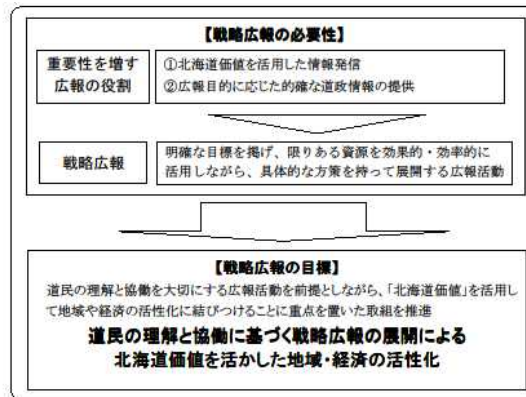
일시	일정 및 방문기관	주요 내용
10.24(월)	출국: 인천(09:45) → 일본 신치토세공항(12:45) (항공편: KE 765)	숙소 北海道札幌市南区定山溪温泉東2丁目
	- 북해도 도청방문(농정부 농정과) - 시간: 15:00-17:00 - 참석자: ○ 하시모토 마사아키(기획) ○ 스즈키 아키오(국제교류) ○ 모리 후미코(홍보기획)	- 북해도 예산 중 홍보예산 비율 - 농업 및 농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방법 - 정책홍보 효율화를 위한 홍보전략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농축산물 소비 확대 대책
10.25(화)	이동: 삿포로(08:30) → 오비히로(13:20)	숙소 北海道中川郡幕別町
	- 오비히로 시청 방문 - 시간: 13:20-14:30 - 참석자: ○ 치바 유우사(농정계)) ○ 타구치 케스케(산업연대실)	- 오비히로 예산 중 홍보예산 비율 - 농업 및 농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방법 - 정책홍보 효율화를 위한 홍보전략 - 푸드밸리 도카치 실시배경, 목적, 현황 등
	- 오비히로시 및 대학관계자와의 간담회 - 시간: 18:00-20:00 - 장소: 일두(一斗) - 농업정책 및 농촌활력화 홍보방안, 지자체의 역할 및 대학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정책홍보 효율화 방안 등 논의 - CRIC 출장자 - 히구치 아키노리 - 다카하시 야스코 - 한규호 박사
10.26(수)	- 오비히로 대학 방문 - 시간: 09:30-11:00 - 참석자: ○ 나가사와 히데유키(학장) ○ 히구치 아키노리(농업경제학 교수) ○ 사와다 마나부(농업경제학 교수) ○ 센보구야 야스시(농업경제학 교수)	- 경제 글로벌화에서의 농업정책 - 축산선진화를 위한 대책 - 효과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
	- 오비히로 야치오공공육성목장 방문 - 시간: 14:00-16:00	시설견학
10.27(목)	귀국 신치토세(13:45) → 인천공항(16:45) (항공편: KE 766)	

Ⅲ. 출장 내용

▣ 북해도 도청 농정과 관계자와 주요 면담내용

- 장 소: 북해도 도청 7층 농정과 회의실
- 기 간: 4월 24일(월) 15:00 - 17:00
- 참석자: 이상곤 소장, 연규영 연구위원, 손영미 전문원, 鈴木章代(국제 교류 담당), 橋本眞明(정책기획), 盛文子(홍보기획)
- 주요 내용
 - ▣ 북해도 총예산(2조 7,956억엔) 중 농림수산업의 예산비중은 6.2%이며, 자체 홍보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사업예산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음.
 - ▣ 북해도 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홍보수단은 크게 '미디어', '신문', 'TV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고 최근 SNS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온라인 홍보로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음.
 - ▣ 도에서는 신속과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도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도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은 각 부국 등과의 조정을 하면서 전개하는 전 도청홍보와 각 부국 등의 사업에서 행하는 개별홍보로 구분되어 있음
 - ▣ 전 도청홍보는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인 홍보지 및 TV, 신문 등의 지면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지로서는 '호카이도'(년 6회, 다블로이드판, 4P, 약 250만부, 각 가정에 배포)를, TV(인터넷 TV)는 도 정책홍보방송 '위클리 아카렌가'(매주 3분), 지사출연 동정홍보특별 방송(연 2회, 15분)을, 신문은 '여러분의 아카렌가'(월 2회, 북해도 신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북해도 비즈니스'(년 8회, 일본경제신문), 지방신문 지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도청사 1층에 도정책 홍보코너를 설치하여 상설전시, 특설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디지털 방식으로는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홈페이지, 블로그, 메이메거진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 한편 민간기업과의 협동홍보로서 편의점을 활용한 홍보물 배포, 포스터 게시, 점내 방송, 요리 레시피를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도내 시군읍면과의 연대를 위해 각 지자체 홍보 담당자와의 홍보기술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음
- 북해도의 홍보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2011년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전략홍보방침 수립
 - 전략홍보의 목표 : 도민의 이해와 협동을 기본으로 전략홍보의 전개에 의한 북해도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 전략
 - ① 북해도 가치의 효과적인 발신
 - ▶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 새로운 매스미디어 개발, 도외, 국외에서의 정보네트워크 강화, 도내 각 지역으로부터의 정보발신의 충실 및 강화 등
 - ② 도민의 이해와 협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홍보 추진
 - ▶ 도민 뉴스 등 아날로그방식의 효과적인 활용, 미디어믹스 추진, 홍보에 대한 도민 의견 파악과 반영, 도민, NPO, 기업 등이 참가한 홍보 추진 등
 - ③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매너지먼트기능 정비
 - ▶ 홍보위원회의 기능 강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일원화, 직원의 홍보마인드 제고, 매스미디어에 대한 대표창구의 명확화 등
- 북해도 특산물의 소비촉진 및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중점테마와 집중 시기를 결정함. 올해의 경우 식/환경/지역을 중점테마로 선정하였고 집중시기를 농산물의 수확시기인 9월에서 11월로 정하여 도가 보유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농산물 소비감소의 영향에서 북해도는 커다란 피해가 없음. 북해도 농수축산물은 일본사람들에게 친환경으로 인식되어 있음.



<북해도 도청 농정부 관계자와 정책홍보 관련 면담>

■ 오비히로 시청 농정과 관계자와 주요 면담내용

○ 장 소: 오비히로 시청 3층 농정과 회의실

○ 기 간: 4월 25일(화) 13:20 - 14:30

○ 참석자: 이상곤 소장, 연규영 연구위원, 손영미 전문원, 千葉優作(농정 담당), 田口賢祐(산업연대 담당)

○ 주요 내용

- 총예산에서 홍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사업예산에서 필요시 이벤트 및 강연회 등의 홍보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오비히로 시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홍보수단은 매년 6번 발행하고 있는 '오비히로' 홍보지이고, 기타 농가에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은 팩스를 활용하고 있음. 인터넷은 홈페이지와 함께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음
 - 팩스를 활용하는 것은 오비히로시의 농가 대부분이 농협회원이고 팩스를 갖고 있기 때문임
- 오비히로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농가마다 농업인 후계자가 있으며, 젊은 사람이 많아 고령화와 관계가 없으며, 식량자급률이 1,100%에 이르고 농가의 수입이 연간 1,300만엔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음
- 시에서의 정책홍보는 지자체 자체적인 정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食育, 지산지소와 소비자에의 농업이해촉진, 농축산물 소비확대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음
 -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는 대부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본대지진 이전과 이후 소비확대홍보방법에는 차이가 없음
 - 오비히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食의 안전성이 높은 지역으로 느끼고 있고 지진발생지역과 200km이상 떨어져 있어 대지진 이후 시의 특산물 소비감소는 없었음
 - 오비히로 특산물인 밀, 감자, 고구마의 경우 메이퀸축제에서 무료시식회 등을 통해 오비히로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음

- 푸드밸리 도카치를 실시한 배경은 도카치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며, 농업자, 중소기업자 등 지역이 같은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특히 도카치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혜택받은 환경, 안전안심 및 브랜드의 힘, 풍부한 생산력, 산지입지형 기업 등)를 재인식하고 산업진흥을 통해 지역발전기반을 강화하고자 푸드밸리 도카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푸드밸리 도카치의 추진전개방안은 첫째,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한다. 둘째, 먹거리의 가치를 창출한다. 셋째, 도카치의 미력을 판매하다이며, 이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의 연계, 기업, 연구기관, 농림어업단체, 상공단체 등과 다양한 시책을 논의하였음
 - 푸드밸리를 통한 기대효과는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지역경제활성화, 판로확대, 신상품개발 등이며, 특히 국제전략총합지구로서의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 푸드밸리 도카치의 활성화를 위해 도카치 지역에서 일본 밀생산량의 25%를 생산하고 있어 밀=우동이 아닌 밀=빵의 인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유명 셰프의 빵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음



<오비히로시 농정과 관계자와 정책홍보 관련 면담>

■ 오비히로 시청 및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

○ 장 소: 오비히로시 일두(一斗)

○ 기 간: 10월 25일(화) 18:00 - 20:00

○ 참석자: 이상곤 소장, 연규영 연구위원, 손영미 전문원, 樋口昭則 교수
(오비히로대학), 한규호 조교수(오비히로대학), 高橋やす子
(오비히로시)

○ 주요 내용

- 이상곤 소장과 오비히로 대학관계자들, 오비히로시 관계자, CRIC 연구진들은 사회적 비용최소화 및 농어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제고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홍보전략 및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대학 및 지자체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일본정부 및 지자체의 현황에 대해 토의함.
- 한국에서 한미FTA로 인해 농업계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 경제협정)에 참여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매우 심함. 특히 북해도 지역에서의 반발은 다른 지역보다 심함. 일본 경제 전체에서 농업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지역 사회는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면 미국과 호주에서 일본으로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어 일본 농업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임.
- 한국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매우 부러움. 지난 동일본 대지진때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본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매체는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면서 SNS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지만 일본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정도만 활용하고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일 농어촌 운동'은 매우 흥미로운 정책이며, 일본의 경우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정책추진은 정부주도 보다는 지자체 주도임. 현재 오비히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밸리 도카치 운동도 농업이 기간산업인 오비히로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며, 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대학과 다양한 각도에서 연계하여 만들어졌음.

■ 일본 오비히로대학 학장 방문 및 면담

- 장 소: 오비히로 대학 학장실
- 일 시: 10월 26일(수) 9:30 - 10:00
- 참석자: 이상곤 소장, 연규영 연구위원, 손영미 전문원(이상 CRIC)
 - Dr. Hideyuki NAGASAWA(오비히로대학 학장)
 - Dr. Akinori HIGUCHI

○ 주요 내용

- Higuchi 교수는 오비히로대학 Nagasawa 학장에게 이번 한국방문단의 방문목적 및 관심사에 대해 보고 했음
- Nagasawa 학장은 오비히로 대학은 일본에서 유일의 축산 및 수의로 특화된 대학으로서 일본 축산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석·박사과정에서 학부과정으로까지 늘어 났으며, 한국과 많은 인적교류 및 연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이상곤 소장과 Nagasawa 학장은 한국에서의 한미FTA 체결과 일본에서의 TPP 가입은 농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국민 이해제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



<오비히로대학 학장과의 면담>

■ 오비히로 八千代육성목장 방문

○ 장 소: 북해도 오비히로시 YACHIYO목장

- 北海道帶廣市西5條南7丁目1

○ 기 간: 10월 26일(수) 14:00-16:00

○ 방문자: 오이상곤 소장, 연규영 연구위원, 손영미 전문원

○ 주요 내용

- 오비히로시 남서쪽에 위치한 八千代목장은 총면적 976헥타로 1,500두의 소가 육성·방목되고 있고 체험학습 및 숙박연수를 위한 축산연수센터 및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 八千代목장은 자급사료기반 확대 미 cdbrtjdqnans의 분리에 의한 낙농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영사업에 의해 1975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1982년에 완성되었음
- 八千代목장은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착유용 육성우 등 가축을 방목 및 우사에서 육성관리를 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장 축제, 산야채 채취 등의 이벤트를 통해 인간과 농업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알리고 있음
- 축산물 가공센터는 오비히로시의 축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가공기술, 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진흥과 농업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1985년에 설립되어 북해도산 돈육 및 우육을 사용한 햄 및 소시지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음

八千代목장 전경모습



오비히로시 축산연수센터에서 기념사진

